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일인 지난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전주에서 맛보는 세계의 소리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24일까지

북미·중동·중앙아시아 등 11개국 89개 프로그램 마련  
개막공연 ‘상생과 회복’, 동서양 음악 장점 모두 수용  
지난 주말 이자람 관소리 ‘노인과 바다’ 등 프로그램 눈길  
베트남·아랍에미리트·영국 등 해외 음악인 공연도

전주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소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15일 오후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축제로 진행되며, 24일까지 열린다.

소리축제 조직위는 축제의 무대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 경기전, 전주 동헌, 전라감영, 전주대사습청 등으로 넓혔다.

소리축제의 서막을 알린 개막공연 ‘상생과 회복’은 15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렸다.

상생과 회복은 서양음악이 한국으로 전해진 후 한국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뒤 발전해 온, 동서양 음악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형태로 우리 전통 음악과 클래식, 관소리와 오페라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먼저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이리랑 환상곡’이 장중을 채웠다.

서양의 현악기가 구성된 이리랑의 선율을 따라가면서 뜻밖의 조화로운 소리를 냈다.

이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 서선영은 우리의 전래민요 ‘채야 새야 피랑새야’를 맑은 고음으로 재해석했다.

바리톤 김기훈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오페라 박하탕 중 나무꾼과 선녀 부분을 불렀고, 국악인 김윤희, 고영열은 관소리 무대를 선보였다.

개막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최우정 작곡의 ‘꿈’ 무대에는 서선영, 김기훈, 김윤희, 고영열이 모두 무대에 올라 유려한 소리를 선물했다.

이왕준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축제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그간 미흡했거나 보충했으면 하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며 “올해 축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리축제에서 북미·북유럽·

중동·중앙아시아 등 해외 11개국과 8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프로그램들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16일 경기전의 아침 ‘풍류프락’, 이자람 관소리 ‘노인과 바다’, 라이징스타 완창관소리 ‘적벽가 이봉근, 산조의 밤 김일룡, 김경아, 루프탑시리즈 No.1 스탠딩 B구역(3부),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으며, 17일에는 장한나와 미샤 마이 스키의 디토오케스트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음악극 ‘경계’, 라이징스타 완창관소리 ‘심청가-김윤희, 어린이 오감체험 프로그램인 ‘바실가드, 탈춤’ 등이 열렸다.

지난 16~17일 관백나무숲에서는 칠

레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아랍에미리트·중국과 관련된 월드뮤직 워크숍이 열렸다.

이와 함께, 소리문화전당 놀이마당에서는 베트남 질라이성 소수민족 자라이 민속음악, 아랍에미리트 타악 앙상블 영국의 루크 제랄드 우즈베키스탄 소드나나 챔버 오케스트라, 폴란드 미치미치와 헤데로포니 그룹 등 해외 음악인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관련, 중국의 산시성 실크로드 예술단의 공연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남해안별신굿보존회가 ‘남해안 별신굿’을, 강릉단오제보존회가 소리축제와 함께 ‘강릉단오굿’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세계소리축제는 그간의 역사 위에 정통성과 예술성, 축제성을 더해 잠재적인 우리 음악의 미래 가치를 담았다”면서 “동시대성을 담아낸 우리 음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4일 오후 7시 30분에 만날 수 있는 폐막작 ‘이희문 오방신과 춤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염원’

도,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도민·출향민 대상... 11월 초 국회에 서명부 전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연내에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전북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돼 있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이 연내 통과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 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선도적이면서 전북인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담긴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 및 출향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전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재훈 기자

## 캠버리 참가자 이동버스 임차료 지금 ‘진행 중’

도, 전세버스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 후 계약 체결

전북도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캠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

캠버리 행사 종료 후 전북도는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계약 및 단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적(8월 8~12일)으로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대 별도)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

도는 다양한 운행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가 협의·조정안에 적극 응해 줌에 따라 15일 현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인 조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함께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값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자연의 나라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NH농협무주군지부장 김범석  
무주농업협동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업협동조합장 김성곤

무주 반딧불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

NH 농협